주님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다봄의 기도 동역자 JSBMF 형제 자매 여러분께,

할렐루야!

어느덧 가을의 문턱을 넘어서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는 추분(9월 23일)을 눈앞에 두고 있고, 또 앞으로 한 주 후면 한가위 추석을 맞이하게 되는 9월의 중순입니다. 그러나 한낮의 더위는 아직 철모르는 계절처럼 그 열기를 한여름인양 섭씨 30도를 넘나드는 요즈음입니다. 며칠 전 미국 LA에 사는 큰 딸과의 대화에서 알게 된 것이지만, 남가주 그곳의 한낮 열기도 매우 무덥다는 말에, 예전 저희가 그곳에 살던 때의 늦여름 늦더위 기억이 새삼스럽기도 했습니다.

올 여름 이곳 제주에서는, 두 차례의 '2023 Summer VBS Camp'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저는 둘째 딸 임보라 선교사의 첫 사역지를 들러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름의 분주함을 뒤로 하고 앞으로 맞게 될 사역을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토요영어교실 외에도 지난 번 선교편지에 기도 부탁드렸던 (1)교육/훈련/돌봄 공동체 사역 준비 (2)착한 학원 개설 및 운영 (3)북한선교 준비, 이상 세 가지의 사역입니다.

첫 번째의 공동체 사역 건은, 함께할 동역자 분들과 계속해서 한두 군데 장소를 놓고 기도와 예배 중에 있습니다. 규모와는 상관없이 시작하게 될 공동 사역의 현장에는 몇몇 분의 선교사 가족들과 몇몇 분의 성도들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체적인 진행과정들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의 착한 학원 개설과 관련해서는 아직 기도 중으로 더 진척된 내용이 아직은 없습니다만, 응답이 되어지는 대로 곧바로 시작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의 북한선교 준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이곳 제주에서의 북한선교학교를 섬기며, 탈북민들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 세미나와 기도 모임 등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한 선교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북한교회 개척학교에 등록하여 첫 학기를 시작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대로 앞으로 있을 북한교회 개척을 위한 준비과정 공부를 시작했기에 여러분께 보고드리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역과 관련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다봄집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은 토요 외국어(영어와 중국어)교실과 돌봄 사역입니다. 지난 번에도 소개해드린 양성임 자매는 여러 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매일 아침 '느새' 예배는 물론 이곳에서 드려지는 각종 예배까지 함께하며 기도의 동역자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체중을 줄이기 위한 식생활 조절에도 계속 동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이곳 생활에 자신감이 생겨서인지, 이곳을 방문하신 분들 한테도.거침없이 말을 건네고, 주일 아침 예배를 가기 전에는 깨끗한 원피스을 차려 입고 그동안 하지 않던 화장품까지 얼굴에 바르는 등 삶에 자신감을 갖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활동과 사고체계에 약간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계속 돌봄과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가장 인기와 관심을 얻고 있는 영어VBS Camp 사역과 관련해서는, 이곳 한국의 학제에 따라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용해서 가능하면 두 차례 정기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곳 한국의 학제는 미국과 달리 긴 겨울 방학이 있어 겨울방학 캠프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팀멤버 확보를 위해 한국에 나와 계신 홍콩 출신 영어 교사 출신 선교사님들은 물론 저희 파송교회인 나성한인교회 선교위원회에도 체계적인 지원을 부탁해 놓은 실정입니다.

사실 저희 VBS캠프에 필요한 인원은, 보통 캠프 참가학생의 수가 30명 미만인데다 여기서도 어느 정도의 팀멤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미국에서 오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재 교회에서 두세 명의 VBS 유경험자(고등학교 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함)가 이곳 캠프에 참석해 돕는 일은 (제 경험으로 볼 때) 절대적으로 큰 도움이 되며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저희 다봄집 사역의 동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인사를 올립니다. 부디, 계속해서 저희 다봄집의 사역을 위한 관심과 기도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리며, 혹시 궁금하신 것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멀리서나마 복되고 은혜로운 추석 한가위 맞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서귀포 다봄집에서,

임철현, 임윤실 선교사 올립니다.

P.S.: 이해를 돕기 위한 몇 장의 관련 사진을 첨부합니다.

(1) 고려인 학생들을 위한 캠프 사진

(2) 제주 아이들을 위한 캠프 사진

(3) 네팔 보라 선교사 사역지 방문 사진

(4) 다봄집 관련 사진



